

‘한전 효과’ 광주·전남 상장법인 시총 3조 늘었다

5월 지역 25조7천억...전월비 13.2% ↑
보해양조·그린생명과학도 상승률 두각
거래대금 9.4% ↓...코스닥 감소폭 커

지난 5월 국내 증시가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상장법인들의 시가총액도 한국전력의 강세를 중심으로 3조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KRX) 광주혁신성장센터가 10일 발표한 ‘2025년 5월 광주·전남지역 상장법인 증시동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지역 상장법인 38개사의 시가총액은 25조7천63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말(22조7천844억원) 대비 13.2%, 금액으로는 2조9천946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이번 상승을 주도한 대표 종목은 한국전력이다. 5월 한 달간 한국전력의 시가총액은 전월 대비 3조172억원이 늘어나 지역 전체 상장사 시총 증가분을 웃돌았으며 전월비 상승률은 18.3%를 기록했다.

한국전력의 시가총액 급증은 최근 주가 상승세와 맞물린 결과다.

증권가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원화 강세 등을 주요 상승요인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3분기까지 이어지고 유가 및 환율 하락에 따른 연료비

부담 완화가 실적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전망도 나왔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법인(15사)의 시가총액은 전월 대비 13.7%(2조8천847억원) 증가한 23조9천785억원을 기록했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23사)의 시가총액은 전월 대비 6.6%(1천984억원) 증가해 1조7천846억원이었다.

5월 한 달간 지역 상장법인의 주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보해양조(760억원, 15.9%), 화천기공(693억원, 8.6%)이 유가증권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그린생명과학이 144.6%의 폭발적 상승률로 주목 받았고 파루(93.6%), DH오토웨어(27.0%)도 강세를 보였다.

반면 거래대금은 다소 감소했다.

광주·전남 투자자의 거래대금은 전월 보다 9.4% 줄어든 2조2천88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투자자의 거래대금 비중 대비 0.6% 수준이다.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은 전월 대비 3.9% 줄어든 1조3천704억원, 코스닥은 16.5% 감소한 9천176억원으로 특히 코스닥에서의 감소폭이 컸다.

한편 5월 국내 증시는 기준금리 인하와 글로벌 정책 완화 기대감에 힘입어 반등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한 달간 5.5% 상승하며 2천700선을 회복했고 전체 시장 시가총액도 전월 대비 5.2% 증가한 2천584조원에 달했다. /정은솔기자



고병일 광주은행장과 황병우 iM뱅크 은행장이 지난 9일 담양군에서 열린 '달빛동맹 교류행사'에서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될 달빛 꾸러미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iM뱅크, ‘달빛동맹’으로 영호남 화합

올해로 8회째...담양서 교류활동 진행

‘달빛꾸러미’ 제작 취약계층을 온정 나눔

광주은행과 iM뱅크가 영호남 상생과 화합을 위한 교류행사를 개최했다.

광주은행은 10일 “전남 담양에서 iM뱅크(구 대구은행)와 함께 영호남의 상생발전과 화합을 위한 ‘달빛동맹 교류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달빛동맹 봉사활동’은 광주시(빛고을)와 대구시(달구벌) 간의 우호

협력 관계인 ‘달빛동맹’의 일환으로 광주은행과 iM뱅크는 정기적으로 양 지역을 상호 방문해 봉사활동과 문화 체험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고병일 광주은행장과 황병우 iM뱅크 은행장을 비롯한 양사 임직원 60여명이 참여했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달빛꾸러미’ 제작 봉사활동 ▲명인과 함께하는 담양 한과 만들기 체험 ▲지역사회 공동발전을 염원하는 소원패 달기 등 양 기관의 협력과 화합을 다질 수 있는 다채로운 활동을 펼쳤다.

특히 유과와 강정 등 지역 특산품을 담은 ‘달

빛꾸러미’는 광주은행과 iM뱅크 임직원이 직접 제작해 전남 담양군의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될 예정으로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는 뜻깊은 나눔이 됐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광주은행과 iM뱅크가 함께하는 달빛동맹 교류행사는 지역 금융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 간 긍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고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은솔기자

씨아이에스케미칼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이차전지 분야 첨단소재 전문기업

광주·전남중기청, 현판 수여식도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0일 “2025년도 글로벌 강소기업 1000+”에 선정된 진곡산업에 위치한 씨아이에스케미칼을 방문해 현장에서 지정서 및 현판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글로벌 강소기업 1000+지원사업은 500만불 이상의 수출중소기업 중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수기업을 선정해 해외마케팅 지원과 R&D 및 금융지원 우대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씨아이에스케미칼은 고순도 알루미늄, 이차전지 양극 도핑제, 전구체용 원료 소재를 생산하는 이차전지 분야의 첨단소재 전문기업으로, 고순도 알루미늄 상용화 기술을 개발해 국산화에 성공해 국내 양극제 제조업체와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광양공장에서는 연산 2만t 규모의 생산라인



을 갖추고 이차전지 전구체용 원료 소재인 고순도 니켈 수산화 침전물(Pure-MHP)을 양산해 국내외 배터리 고객사에 납품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이다.

박종찬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수출 관련 애로 및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총 8개 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됐으며 6월말까지 지방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지정서 및 현판 수여를 할 계획이다. /정은솔기자

한전KPS, 체코 원전 시운전 정비 준비 박차

현지 기업들과 협력 체계 구축

전력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운전 정비와 가동 전 검사 등 전담예정 역무 수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일 한전KPS에 따르면 체코 발주사 EDU II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4일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말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약 9개월간의 기술·가격 협상을 거쳐 성사된 것으로 APR1000호형 2기를 체코 남부 두코바니 지역에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착공은 첫 번째 호기 2029년, 두 번째 호기 203

0년을 목표로 하며 상업운전 개시는 각각 2036년과 2037년으로 예정돼 있다.

이번 수주는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해외 신규원전 사업 수주로, 한국 원전의 경쟁력을 유럽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다.

본 계약에서 한수원은 원전 설계·구매·건설(EPC)을 총괄하며 이 중 한전KPS는 시운전정비 및 가동전 검사 등을 전담한다.

시운전정비는 발전소 건설의 최종 단계에서 상업운전 개시 전까지 수행되는 핵심적인 정비 활동으로 설치가 완료된 기기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각종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시험을 지원하며 시운전 기간 중 발생하는 기계·전기·

계측제어 설비에 대한 긴급 복구작업 등을 포함한다.

설비의 이상 유무를 최종 점검하고 성능보증 시험을 통해 상업운전 이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전KPS는 이러한 시운전정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체코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 체계를 적극 구축해왔다.

아울러 한전KPS는 현지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정비체험 프로그램을 2회에 걸쳐 2022년도에는 UAE원전에서 2024년도에는 한국에 초청해 시행했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한전KPS는 국내 28개 호기 원전정비경험과 UAE 원전 4개 호기 정비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해 체코 신규 원전에서의 역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기자

광주매일신문

창사 34주년을 축하합니다

목포

목포레미콘(주)

MOKPO REMICON

고강도 콘크리트 인증

58556 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525-25

TEL : (061) 452-0461~4

출하실 : (061) 452-0465

FAX : (061) 454-0421

E-mail : 4520461@naver.com

광주매일신문 창사 3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의 눈과 귀가 되어, 정의롭고 따뜻한

언론의 길을 걸어온 34년.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호흡하며

빛나는 미래를 밝혀주시길 응원합니다.

- 무안군 무안읍 주민자치위원 일동 -

CMYK